

제로스포츠[ゼロスポーツ] 자동차의 미래는 내가 책임진다

1) 기업개요

- 소재지 : 岐阜県各務原市大野町6-101-1
- 분 야 : 자동차 애프터마켓 부품 제조 판매
- U R L : <http://www.zerosports.co.jp>

2) 기업 소개

□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다

- 제로스포츠는 자동차 쇼핑몰 운영, 자동차 애프터마켓 부품 제조 판매, 전기자동차(EV)제조 판매를 등 세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
- 1994년 설립되어 역사는 길지 않지만 자동차 업계에서 급성장한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
- 이 회사의 특징은 세 가지의 사업부(자동차 쇼핑몰 운영, 자동차 애프터마켓 부품 제조 판매, 전기자동차(EV)제조 판매)를 서로 잘 연동시키는데 있음
- 특히 자동차 판매 및 리스를 담당하는 자동차 쇼핑몰 ‘제로 맥스 사업’은 카운슬링판매 기법을 도입하고 있는데, 이것은 고객의 섬세한 요구를 듣고 그에 가장 적합한 차량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임

□ 브랜드 구축

- ‘제로 맥스 사업’을 통해 많은 고객들을 접하면서 고객들이 어떤 차량을 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이것을 애프터 부품 제조 판매 ‘제로 스포츠 사업’에 반영시키고 있음
-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발한 제품은 현재 약 500여 품목에 이르며, 이들 제품에 대한 판매실적을 올린 점포는 7000여개에 달함
- 또한 후지중공업이 만드는 스바루 자동차의 부품 180여개에 대한 인증을 취득함
- 이로 인해 ‘스바루(スバル)’ 사용자가 제로스포츠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’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
- 애프터마켓 부품을 기획 제조하는 과정에서 디자인과 기술력이 향상되고, 이것은 자연스럽게 전기자동차(EV)제조 등 환경 관련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음
- ‘디자인 감각이 떨어지고, 속도가 느리다’는 기존의 전기자동차 이미지를 뒤엎는 독창적인 모델로 수주도 호조를 보이고 있음
- 현재 연간 매출은 약12억 엔에 이르고 있으며, 세 개의 사업부가 각각 균형 있게 4억 엔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
- 그 중 앞으로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분야는 환경 관련 사업인 전기자동차(EV)임

□ 전기자동차의 판매 확대

-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고조되면서 지자체와 기업들이 연이어 전기자동차 도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음

- 2009년 이후 자동차업체의 차세대 전기자동차 출시가 이어지면서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 지고 있음
- 전기자동차의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, 제로스포츠는 대형 자동차업체의 물량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요를 일부 담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
- 구체적으로는 전기자동차 신차 판매가 아닌 기존의 가솔린차를 전기자동차로 개조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
 - 개조하는 것은 경트럭 등 상용차로, 수주한 날로부터 약3개월 정도면 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자동차로 새롭게 개조시킬 수 있음
 - 전동차량보급센터나 각 지자체가 제공하는 보조금을 이용하면, 신차를 구입하는 것보다 개조하는 것이 고객의 부담은 훨씬 적게 들게 됨
 - 앞으로 제로스포츠는 전기자동차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며, 몇 년간 준비해 온 성과가 이미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

□ 성공 요인

- 일본의 자동차업계에서 성공한 벤처기업으로 제로스포츠의 이름을 끄는 경영자가 늘어나고 있음
 - 그만큼 제로스포츠가 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며, 약진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으로는 고객 가까이에서 그들의 요구에 진지하게 대응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
 - 기업은 혼자서는 결코 성장할 수 없으며 고객이 있어야만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업 사례임